북스

Books

삶은 선택의 연속…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딜레마 해부하기 제임스 재스퍼 지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 받았을 질문이다. 질문을 받은 아이는 당혹스러워진다. 엄마를 고르자니 아빠 얼굴이 떠오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곤란한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 친구와 저 친구 중 누구랑 친하게 지낼 것인지, 대학은 어느 곳으로 가야할 지, 직장에서는 어떤 상사와 친해야 할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좋은건지…. 이것을 고르려 하면 저것이 눈에 밟히고, 저것을 고르자니 이것이 정답인 것 같은 상황들의 연속이다.

미국 뉴욕시립대 사회학과 교수인 제임스 재스퍼가 쓴 '딜레마 해부하기'는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상의 딜레마(Dilemma)들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딜레마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 사항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딜레마가 괴로운 것은 각각의 선택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 때문.

하지만 저자는 딜레마란 결코 "곤혹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위험과 비용을 상쇄할 잠재적 이익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관습이나 직관에 따르기 보다 "자신이 선택하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깨닫는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꼽은 일상의 딜레마들은 다양하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편승할 것인지, 그에게 저항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겪는 상황은 '밴드왜건 딜레마'다. 주로 선거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힘을 가진 주체의 행동을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푼돈의 딜레마'는 푼돈을 투자한 사람이 멈춰야 할지, 목돈을 더 투자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앞둔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경험했던 것. 지원군을 베트남에 투입해야 할지, 전쟁을 멈춰야 할지 선택은 쉽지 않다. 저자는 이 딜레마의 관건은 "목돈의 미래 가치를 명확히 파악, 예측하는 것"이라고 충고한다.

저자는 이 밖에 37가지 일상의 딜레마를 사례로 들려주며,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 선택의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법,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적 사고, 그로 인해 안아야 할 위험 또는 얻게 될 이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저자가 내놓은 '전략적 행동의 규칙들'은 의미심장하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들의 경험 범위를 벗어나 일을 추진하라. 적들이 그들 나름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라. 일반적으로 사건 자체보다는 위협이 더 겁을 준다. 공격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전선을 선택하라. 과거의 성공 및 실패의 궤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파악하라…."

〈사이·1만4천3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베트남 전쟁은 푼돈을 투자한 사람이 겪는 '푼돈의 딜레마'의 전형이다. 베트남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미국 정부는 약간의 손해를 봤지만 전쟁을 끝내야 할지, 추가로 지원군을 투입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다. 사진은 베트남 전쟁의 한 장면.

달콤한 코카콜라의 쓰디 쓴 음모

코카콜라 게이트 윌리엄 레이몽 지음

1886년 탄생한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수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미국 애틀랜타의 약제사 펨퍼튼이 만들어낸 코카콜라는 현재 세계 200여개국에서 1초마다 7천병씩, 하루 10억 병 이상이 팔려나간다. 전 세계인의 94%가 코카콜라를 알고 있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탐사보도 저널리스트로 'JFK, 국가 범죄의 해부' '부시 랜드' 등의 책을 펴낸 윌리엄 레이몽이 쓴 '코카콜라 게이트'는 코카콜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되었는지 그 비도적인 음모와 사활을 건 도박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저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코카콜라의 광팬이었다. 콜라병, 광고 포스터, 코카콜라의 로고가 붙어 있는 상품 등 코카콜라와 관계된 모든 것을 강박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던 저자는 이후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본사를 비롯, 프랑스, 독일 등을 찾아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코카콜라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있다.

책은 코카콜라가 독일에서 나치 이데올로기와 함께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코카콜라가 2차 대전 발발 후 유럽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 코카콜라 사장이 나치의 전쟁 전리품을 관리하는 사무국의 국장으로 활동하며 나치 정복지에 코카콜라를 진출시키는 등 나치에 부역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폭로한다. 저자는 또 코카콜라의 유명세를 강화했던 '비밀 제조법'은 실은 사업주가 만들어낸 광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책에는 역시 약제사 출신인 브래드햄이 1894년부터 팔기 시작한 '펩시콜라'와의 계속된 경쟁에서 등장한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눈을 가리고 펩시와 코카콜라의 맛을 보는 테스트), 마케팅 싸움을 넘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리전이 된 펩시와 코카콜라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그밖에 상표권을 두고 벌인 서류조작과 의문의 죽음, 2차 대전이 발발되자 로비를 통해 코카 콜라를 미군의 공식 전쟁 물자품으로 들여보낸 후 미군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진출, 세계와의 발판을 마련한 전략들이 담겨 있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문학상 수상집 시·소설 부문 출간

'제53회 현대문학상' 수상집이 소설과 시 부문에서 나란히 출간됐다.

소설 부문 수상작은 광주 출신 소설가 김경욱씨의 '99%'. 소설집에는 표제작과 김씨의 자선작을 비롯한 김미월의 '현기증', 김애란의 '네모난 자리들' 등 수상후보작 6편, 이승우의 '실종 사례', 조경란의 '2007, 여름의 환' 등 역대수상작가 최근작 3편 등이 실렸다.

시는 이성복씨의 '기파랑을 기리는 노래-나무인간 강판권'이 받았다. 이씨의 작품 11편을 비롯한 김행숙, 박형준, 이장욱씨 등의 수상후보작과 황동규, 김명인, 나희덕씨 등의 역대수상자 근작시 등이 포함됐다.

〈현대문학·소설 1만원 시 8천500원〉

새책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동양고전·한국고전=지난 2004년 출간된 '서양고전'에 이어 영문학자 김욱동씨가 쓴 '고전 3부작' 시리즈가 완성됐다. '동양고전'에는 '논어'에서 '우파니샤드'까지 33권을, '한국고전'에는 '대승기신론소'에서 '토지'까지 30편을 다뤘다.〈현암사·각 권 1만5천원〉

▲생각의 오류=미국 메사추세츠대학 토머스 키다 교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했다. 저자는 인간이 맹신과 오판 때문에 옆길로 새, 오류를 범하게 되는 6가지 유형을 정리한 뒤 자신의 사고체계를 의심 또 의심하라고 주장한다. 〈열음사·1만3천원〉

▲그 남자는 불행하다=핀란디아 문학상과 북유럽 문학상을 수상한 카리 호타카이넨의 장편소설. 호타카이넨으로선 국내 첫 소개작이다. 단 한 번 실수로 가족을 잃게 된 남성 마티와 아랑곳하지 않고 흐르는 주변인들의 삶을 통찰하는 블랙유머가 압권이다. 〈책이좋은사람·1만1천원〉

▲취옹, 풍경을 마시다=왕희지의 '난정집서'에서 주희의 '백장산기'까지 중국의 문인 27명이 쓴 34편의 기행 산문을 엮은 책. 원저자의 원문과 글의 배경이 된 풍경을 사진·산수화로 실어 이해를 도왔다. 지금도 변함없는 풍경을 두고 옛 사람들이 느낀 감동이 새롭다. 〈이룸·1만3천700원〉

▲드림스파이=서울대생 박광세·조형진씨가 대입을 앞둔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멘토링으로 대학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미래공작'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과 사례들을 모아 대학생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만 한 것들을 책으로 엮었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원〉

▲떨림=정호승, 안도현, 도종환, 김용택, 문태준 등 유명 시인 24명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시인들은 잔인하게 끝나버린 사랑, 메아리 없는 짝사랑, 현실의 벽에 뿌리쳐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랑, 온몸으로 겪었던 절절한 사랑 등을 잔잔한 산문으로 풀어냈다. 〈랜덤하우스코리아·9천800원〉

▲마라토너의 흡연=장편소설 '도모유키'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조두진씨의 새 소설집. 표제작을 포함한 7편의 단편이 실렸다. 일상의 이면을 특유의 위트와 유머, 허무 섞인 시선으로 그려냈다. 쓴웃음을 자아내는 소설 속 인물들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한겨레출판·9천500원〉

▲경영, 과학에게 길을 묻다=전략·인사 컨설팅 전문가 유정식씨가 학문을 '가로지르는' 통섭의 대상으로 과학과 경영을 선택했다. 포스텍(옛 포항공대) 출신 과학자가 경영 컨설팅을 하는 저자의 이력 만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과학의 원리와 가설로 경영학적 의미를 추출해냈다. 〈위즈덤하우스·1만5천원〉

▲블루리본 서베이 서울의 레스토랑 2008=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레스토랑 평가서를 펴내며 한국의 '미슐랭'을 꿈꾸는 블루리본 시리즈의 새 버전. 객관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도입, 매년 새롭게 달라지는 음식과 식당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클라이닉스·1만8천원〉